

딸

春川서 3도

【春川】5일(우) 7시경 春川市 溪洞 春川경찰서 南春川과 春川군청 春川에서 金斗(46)등 春城郡(新東面)가 유괴의 선수를 뿌리고 성원을 을 그 부친사를 기도 3도화산(春川)을 추친성원(春川)을 거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에 빠졌다.

金씨의 어머니 차모씨(68) 春川市後坪洞(春川)을 金씨가 지난달 7일(우) 6시경 자신의 딸(10)이 성원을 나갔다가 20대보이는 청년에게 강제로 인신(碩士洞)을 속한 스무살(春川)의 딸(가)를 추친(春川)하고 돌아와 이를 비판 계속 출판(春川)하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 인근(春川)의 소행으로 보고 50대(春川)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전정(春川) 단서를 전(春川) 못하고 있다.

1987年9月14日 月曜

정

사회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대도시 주택가 등에서 6~12세 여자어린이가 청소년이나 성인남자에 의해 성추행이나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잦아져 각종 상담기관에 피해사례를 상담해오는 부모들이 늘고 있으며 한국심리상담연구소는 10월 중에 이런 피해를 본 어린이의 부모들이 사건의 경험과 의견을 교환하고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모임(우)를 준비하고 있다.

성폭행(春川)과 만(春川)한(春川) 청소년(春川) 대한가정(春川)의 상담기관에 따르면 성피해를 본 여자어린이의 관한 부모의 상담이 최근(春川) 늘고 있으며 내용(春川) 있어(春川) 이(春川) 점(春川) 아이(春川)를(春川) 두(春川) 예(春川)한(春川) 다(春川)는(春川) 단(春川)한(春川) 것(春川)에서(春川)부터 성(春川)인(春川)을(春川) 단(春川)한(春川) 것(春川)으로(春川) 다(春川)는(春川) 것(春川)이다.

서울의 경우 각 경찰서마다 어린이 성피해 사건이 한달 평균 2~3건씩 접수되고 있다. 남에게 드러내놓고 말하기 어렵은 문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이의 성피해는 실제로 훨씬 심각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春川)하고 있다.

원마전 서울(春川)에서(春川)는(春川) 주(春川)택

어린이 성폭력 피해



각종 상담기관에 電話부적

를 재수생이 유인,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서울(春川)의 한 아파트단지에서는 하숙생의 주인공의 유괴(春川) 어린이(春川)를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심한(春川)까지(春川)는(春川) 아니더라도 부모들이(春川) 무(春川)한(春川) 사(春川)태(春川)가(春川) 곳(春川)에서(春川) 일(春川)어(春川)나(春川)고(春川) 있(春川)다(春川). 한(春川) 주(春川)는(春川) 단(春川)화(春川)가(春川) 계(春川)에(春川) 간(春川) 6(春川) 세(春川) 된(春川) 딸(春川)이(春川) 오(春川)지(春川) 않(春川)아(春川) 데(春川)리(春川)라

만(春川)화(春川)가(春川) 계(春川) 주(春川)인(春川)의(春川) 무(春川)를(春川)에(春川) 얹(春川)아(春川) 건(春川)이(春川) 발(春川)생(春川)했(春川)으(春川)며(春川) 서(春川)울(春川)의(春川) 한(春川)아(春川)파(春川)트(春川)단(春川)지(春川)에서(春川)는(春川) 하(春川)숙(春川)생(春川)의(春川) 주(春川)인(春川)의(春川) 유(春川)괴(春川)성(春川) 폭(春川)행(春川)을(春川) 성폭(春川)행(春川)한(春川) 사(春川)건(春川)이(春川) 있(春川)었(春川)다(春川).

한국심리상담연구소(春川)는(春川) 성(春川)과 해(春川)를(春川) 당(春川)한(春川) 어(春川)린(春川)의(春川) 부(春川)모(春川)가(春川) 늘(春川)라(春川)고(春川) 충(春川)적(春川)에(春川) 대(春川)처(春川)를(春川) 물(春川)어(春川) 지(春川)양(春川)도(春川) 특(春川)대(春川)처(春川)를(春川) 세(春川)우(春川)기(春川) 위(春川)한(春川)도

도(春川) 아(春川)동(春川)의(春川) 성(春川)적(春川) 학(春川)대(春川)에(春川) 관(春川)한(春川) 문(春川)제(春川)를(春川) 전(春川)사(春川)로(春川) 제(春川)기(春川)할(春川)때(春川)가(春川) 됐(春川)다(春川)고(春川) 말(春川)했(春川)다(春川).

성(春川)폭(春川)행(春川)을(春川) 당(春川)한(春川) 어(春川)린(春川)의(春川) 부(春川)모(春川)들이(春川) 10(春川)월(春川)초(春川)에(春川) 사(春川)의(春川) 경(春川)험(春川)과(春川) 의(春川)견(春川)을(春川) 나(春川)누(春川)고(春川) 어(春川)린(春川)의(春川) 전(春川)신(春川)적(春川) 피(春川)해(春川)를(春川) 최(春川)소(春川)화(春川)하(春川)는(春川) 방(春川)안(春川)을(春川) 강(春川)구(春川)하(春川)는(春川) 한(春川)편(春川)다(春川)시(春川)이(春川)런(春川)일(春川)이(春川) 재(春川)발(春川)하(春川)지(春川)양(春川)도(春川) 특(春川)대(春川)처(春川)를(春川) 세(春川)우(春川)기(春川) 위(春川)한(春川)도

놀이터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는 어린이들. 최근 어린이의 성피해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예쁘다”유인후 폭행...경각심 불러 저녁때 한적한곳 심부름 삼가야

“유니세프”의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 성피해 및 성폭행은 이제 세계의 주요한 관심사로 떠오를만큼 심각한 상태다. 인도나 태국에서는 수만명의 어린이가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있을(春川)을(春川) 물(春川)을(春川) 성(春川)인(春川)의(春川) 지(春川)이(春川)고(春川) 있(春川)는(春川) 것(春川)이다.

어린이 성피해는 당사자인 어린이는 물론 부모에게도 엄청난 슬픔과 충격을 안겨준다. 전문가들은 성피해를 당한 어린이들에게서는 폭(春川)을(春川)로(春川) 자(春川)기(春川) 힘(春川)으(春川) 소(春川)외(春川)한(春川) 불(春川)신(春川)의(春川)피(春川)해(春川)의(春川)시(春川)반(春川)항(春川)공(春川)전(春川)을(春川)이(春川) 나(春川)타(春川)며(春川) 갖(春川)가(春川) 지(春川)사(春川)회(春川)부(春川)적(春川)에(春川)는(春川)도(春川) 영(春川)보(春川)인(春川)다(春川)고(春川) 지(春川)적(春川)한(春川)다(春川).

대한가정(春川)에(春川)는(春川) 趙(春川)恒(春川)元(春川)부(春川)녀(春川)성(春川)소(春川)년(春川)과(春川)장(春川)은(春川) “어(春川)린(春川)이(春川) 성(春川)피(春川)해(春川)는(春川) 우(春川)발(春川)적(春川)으로(春川) 당(春川)하(春川)는(春川) 것(春川)이(春川) 모(春川)로(春川) 불(春川)가(春川)한(春川)일(春川)이(春川)만(春川) 이(春川)런(春川) 일(春川)이(春川) 발(春川)생(春川)하(春川)지(春川) 않(春川)도(春川)록(春川) 평(春川)소(春川)부(春川)모(春川)들이(春川) 침(春川)착(春川)한(春川) 교(春川)육(春川)을(春川) 해(春川)야(春川)한(春川)다(春川)”고(春川) 말(春川)했(春川)다(春川).

보(春川)신(春川)사(春川)람(春川)이(春川) “예(春川)쁘(春川)다(春川)”고(春川) 말(春川)하(春川)거나(春川) 돈(春川)을(春川) 주(春川)고(春川) 유(春川)인(春川)할(春川)때(春川) 경(春川)계(春川)하(春川)도(春川)록(春川) 어(春川)린(春川)의(春川)를(春川)에(春川) 계(春川)주(春川)의(春川)를(春川) 시(春川)키(春川)고(春川) 인(春川)물(春川)을(春川) 시(春川)키(春川)지(春川) 말(春川)려(春川) 평(春川)소(春川)부(春川)모(春川)가(春川) 전(春川)을(春川) 단(春川)정(春川)하(春川)는(春川) 것(春川)을(春川) 조(春川)언(春川)하(春川)는(春川) 것(春川)이다(春川).

〈鄭星姬기자〉

女국교생 둘變屍

植物채집나갔다가 이틀만에

警察, 숲속서 발견

【春川】지난(春川)우(春川) 7(春川)일(春川)경(春川) 春川市 溪洞 春川경찰서 南春川과 春川군청 春川에서 金斗(46)등 春城郡(新東面)가 유괴의 선수를 뿌리고 성원을 을 그 부친사를 기도 3도화산(春川)을 추친성원(春川)을 거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에 빠졌다.

金씨의 어머니 차모씨(68) 春川市後坪洞(春川)을 金씨가 지난달 7일(우) 6시경 자신의 딸(10)이 성원을 나갔다가 20대보이는 청년에게 강제로 인신(碩士洞)을 속한 스무살(春川)의 딸(가)를 추친(春川)하고 돌아와 이를 비판 계속 출판(春川)하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자 인근(春川)의 소행으로 보고 50대(春川)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전정(春川) 단서를 전(春川) 못하고 있다.

원마전 서울(春川)에서(春川)는(春川) 주(春川)택

지난 8월 3일 서울고법형사
2부는 가점과 피범 孫모피고
인(당시 19세·무직·서울冠岳
區森天洞)에게 『남편과 어린
부자가 보는 앞에서 저지를
피고인의 범행인 일가죽에게
열렬히 저항수없는 상처를 남긴
만행이므로 중벌로 다스려 마
땅하다』며 징역 5년 6개월
기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었다.

이후 球界보사는 이같은 판
결에 대해 『최근 장·폭력사
범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현
실의 대책사업부의 단호한 응
징의지를 보여준다』고 보도 『하
이로써 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올바른 정통을 유도할것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또 하나의 판
결』이라고 보도했다.

벌과 행한

어머니에

【水原尹貞相기자】 水原지
법 金順甲판사는 13일 딸을

의 집행도 철저히 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89.

人 살해

구각기각

水原地法

추행해온 남자를 때려 숨지게
한 咸모씨(34·여·平澤市碑前
洞)의 구속영장을 기각, 신병
을 풀었다.

咸판사는 『3개월가량 수회
에 걸쳐 여러번을 추행한 피
해자를 진압해야 하겠다고 어
머니로서의 순간적인 분노가
그 정도를 넘어 범행에 이르게
됐고, 즉시 자수했으므로 영장
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咸씨는 지난 6월 밤 9시경
平澤市通伏洞 150의 5 金광
남씨(45) 집으로 찾아가 술
취해 자고있던 金씨를 몽둥이
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평
澤地方法에 의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경찰조사결과 咸씨는 金씨
가 지난 해 11월 8일 자신의 딸
(7)을 平澤市 蛤井洞 한신
탕 요판이로 데리고가 추행하
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자
적분 金씨를 때려 숨지게 했
었다.